



# 중풍의 한방치료

이진화/부평한방병원장

**뇌** 중풍은 우리 나라 사람에게 암 다음으로 사망률이 높은 질환으로, 단일 질환으로는 가장 중요한 사망원인이라 할 수 있다.

뇌졸중이란 뇌 일부분에 혈액을 공급하고 있는 혈관이 막히거나 터짐으로써 그 부분의 뇌가 손상되어 나타나는 신경학적 증상을 말한다.

뇌혈관질환과 같은 용어로 쓰이며 한의학에서는 '중풍(中風)'이라고 한다.

중풍은 그 병형에 따라 뇌출혈, 뇌경색, 지주막하출혈, 일과성 뇌허혈 발작, 고혈압성 뇌증의 다섯 가지로 분류한다.

1980년도 이전에는 뇌출혈이 가장 많았으나, 고혈압 예방과 치료기술의 발달, 평균수명 연장에 의한 노인인구의 증가 및 식생활 서구화 등의 영향으로 현재는 뇌경색이 7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50대와 60대에서 주로 발생하나 최근에는 그 발생 연령층이 40대, 30대로 낮아지고 있어 중풍은 암과 함께 우리 나라 사람이 가장 두려워하는 질병이 되고 있다.

## 1. 중풍을 유발하는 인자

고혈압과 동맥경화증, 당뇨병, 심장질환, 고지혈증, 비만, 흡연과 음주 등은 중풍발생 위험을 높인다. 평소 혈압이 160/95 이상인 고혈압 환자는 정상인에 비해 중풍이 올 수 있는 확률이 4배 정도 높다. 당뇨병이 있는 경우 중풍발생의 위험은 약 3배 가량 높아진다.

또한 과거에 중풍에 걸린 경험이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10~20배정도 높은 발생 가능성이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

## 2 중풍의 전조증상

중풍이 오기 전에 나타나는 징후는 크게 다섯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번째, 갑작스럽게 한쪽 얼굴, 팔다리 등에 힘이 빠지거나 저린 느낌이 온다.

두번째, 갑자기 말을 못하거나 못 알아듣거나 발음이 어둔해진다.

세번째, 갑자기 한쪽 눈의 시력이 나빠지고 침침해진다. 혹은 시야의 한쪽 부분이 잘 보이지 않는다.

네번째, 평소 두통이 없던 사람이 갑자기 두통을 호소하거나 평소에 느끼던 두통과는 다른 종류의 심한 두통을 느끼게 된다.

다섯번째, 갑자기 어지럽거나 한쪽으로 자주 쓰러진다.

## 3. 중풍의 증상

중풍이 발생하면 의식 장애는 없이 팔다리의 마비와 저림, 구안와사 등의 신경학적 증상만 나타나지만, 심한 경우에는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져 정신이 혼미하고 말을 못하며 팔다리가 마비되어 움직이지 못한다.

## 4. 중풍의 한방치료

한의학에서는 중풍은 크게 열(熱), 담(痰), 기허(氣虛) 등 세 가지 인자에 의해 발병되는 것으로 보고 청열사화(淸熱瀉火), 행기거담(行氣祛痰), 보기(補氣) 등의 치료법을 통해 이를 조정하는데 주력한다.

또한 현대 한의학에서는 중풍의 병인(病因)을 이상의 세 가지 외에도 체질에 따른 음양의 편차가

차지하는 비중을 매우 중요시하므로, 중풍 치료에 사상체질의학적 관점을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사상체질의학에 의하면 태음인(太陰人), 소양인(少陽人), 소음인(少陰人), 태양인(太陽人)은 각 체질마다 독특한 심성과 신체적 특징이 있으며 이에 따라 질병의 양상이 다르게 나타나므로 치료방식 또한 달라진다.

●태음인

중풍은 특히 태음인에게 많이 발생한다.

태음인은 외부로 발산하기 보다는 안으로 품는 경향이 강하며, 체격이 크고 배가 많이 나온 편으로 내성적이고 듬직한 성격의 소유자가 많다.

이러한 심신적 특징 때문에 체중이 쉽게 늘고 심혈관계 및 장기능(腸機能)(배설기능)이 약하고 내부에 열(간조열(肝燥熱))이 쉽게 발생하여 다른 체질에 비해 중풍이 쉽게 발생한다.

그러므로 태음인의 중풍치료는 체질적으로 취약한 심혈관계와 장기능을 도와주면서 내부에 형성된 열을 꺼주는 치료법으로써 두통, 어지러움, 뒷목 빠근함, 눈이 충혈되고 침침함, 가슴 두근거림, 변비, 몸이 찝뽕하고 무거움, 입이 씹 등의 간조열로 인해 나타나는 소증(素症)을 치료하므로써 중풍이 자연스럽게 치료된다.

대표적인 처방으로 간조열을 제거하는 청폐사간탕(淸肺散肝湯)이 있다.

●소양인

소양인은 태음인 다음으로 중풍이 많이 발생하는 체질이다.

이 체질은 쉽게 흥분하고 다혈질적인 성격의 정의과로, 상체가 하체에 비해 잘 발달한 편이다.

이러한 심신적 특징 때문에 매사에 흥분을 잘하고 쉽게 상기되며 두뇌가 쉴 틈이 없는 긴장상태가 지속되어 혈압이 쉽게 올라가고 중풍 또한 발병할 위험이 높다.

그러므로 치료에 있어서도 근본 원인인 수기부족(水氣不足)을 보강하고, 또한 긴장에 의해 유발된 열을 식혀주면서 다스린다.

대표적인 처방으로는 흥부의 열을 제거하는 양

격산화탕(涼膈散火湯)이 있다.

이 체질은 두뇌가 빠르고 항시 남과는 다른 무엇을 추구하여 이로 인한 심적 부담이 크다.

즉 육체적인 과로보다는 정신적 과로가 중풍의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평소 이상(理想)만을 추구하기보다는 현실을 현실로 받아들여려는 노력도 육체적 균형못지 않게 필요하다.



●소음인

소음인은 중풍의 발생 빈도가 적은 편이다.

이 체질은 여성적이며 얌전하고 차분한 성격의 소유자로, 기혈(氣血)이 허(虛)하고 몸이 냉하며 체력이 약한 경향이 있다.

하체가 상체에 비해서 잘 발달된 편으로 자존심이 강하여 남의 도움을 청하려 하지 않으며

시기를 잘하고 다소 강한 편이다.

그러므로 소음인의 중풍은 주로 소극적 성격에서 오는 스트레스, 울화나 원기허약에서 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므로 치료시 울화를 풀어주고 원기를 회복시켜 주는데 주력한다.

대표적인 처방으로는 성향정기산(星香正氣散), 팔물군자탕(八物君子湯)이 있다.

중풍이 발병하면 사망에 이르지 않더라도 반신불수, 언어장애 등 치명적인 후유증을 남기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자신의 몸이 자신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을 때의 좌절과 고통을 극복할 수 있도록 치료해 나가면서도 이 병의 근본적인 치료는 발병을 예방하는 데 있음을 한의학에서는 항시 강조하고 있다.